



다큐멘터리 사진작가

박하선의 **사진풍경**

사라져가는 방직공장



그동안 광주 시내에 버티고 있던 방직공장이 사라져간다.
일제강점기 시대 시작한 알짜배기 공장이었어서
그동안 수많은 시골 아낙들을 도시로 불러들인 일터였다.
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른 변화는 거역할 수 없는 것.
섬유산업의 쇠퇴에 따라 그동안 숨만 쉬어 오다가
2020년 정식으로 가동을 중단했었다.
우여곡절 끝에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철거 마무리 중이다.
이 자리에 대형 쇼핑몰을 비롯한 복합 개발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니
많은 변화가 있을 듯하다.

방직공장의 굴뚝이 있는 건물만이 덩그러니 남아서 좀 을씨년스럽다.
개발도 중요하지만, 역사적 측면에서 일부 보존도 필요한 것.
다행스럽게도 이 남은 건물은 어떻게든 보존하기로 했다는 소문이다.
나의 아내도 짧게나마 이곳에서 땀 흘려가며
방직사로 일한 적도 있고 해서
현재의 이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

그러나 카메라를 들고 몇 컷 찍기 무섭게
공장 현장 지휘자로부터 “찍지 마세요!”라는 제지가 있었다.
공사장 밖에 있는데도 말이다.
국가 보안 시설도 아닌데... 돈 벌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
사명감 하나로 하는 건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게 무슨 일인가?
어처구니없다는 표정으로 대꾸하고 돌아섰다.
피해의식으로 가득 찬 우리의 현실이 이래서
쓸쓸한 하루를 보내야 했다.